

보도자료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

2014. 8. 15(금)

<자료문의> ☎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 최희연 사무국장 02-563-2014
미디어 센터 02-6288-6342, 02-6288-6309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아벨 강연

- “수학계 3관왕” 존 밀노어 교수 -

□ 아벨상 수상 기념강연 - John Milnor

○ 아벨상(Abel Prize)은 노르웨이가 자랑하는 수학자 아벨(Niels Henrik Abel, 1802~1829)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상으로 노르웨이 국왕이 매년 수여한다. 수학계에서 필즈상과 더불어 가장 권위 있고 영광스러운 상으로 여겨진다. 2003년 첫 수상자를 선정한 이래 지금까지 총 13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어지는 필즈상과 아벨상을 비교해 보면, 필즈상은 40세 이전에 이루어진 업적으로 4년마다 한 번씩 수여하는 상이지만, 아벨상은 평생의 업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매년 수여하는 상이다. 필즈상은 젊은 수학자를 위한 상인 반면, 아벨상은 평생 업적을 기리는 상이다. 젊은 시절에 필즈상을 받지 못했더라도 평생의 업적이 필즈상 수상자의 업적을 능가하는 수학자들이 있다. 아벨상은 이러한 경우에 수여하는 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역대 수상자들의 수학적 업적과 권위, 수상자 평가 기준, 상금 규모 등의 관점에서 보면, 필즈상보다는 아벨상이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 John W. Milnor (1931년생, 미국, Stony Brook University 석학교수)

위상수학, 기하학 및 미분위상수학 분야에서 선구자적 발견과 업적을 인정받아 2011년 아벨상을 수상하였는데, 1962년 필즈상, 1989년 울프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K-theory, 동역학계 등에 획기적인 업적이 있으며, 또한 여러 대학원과 학부에서 사용되는 수학교재를 다수 집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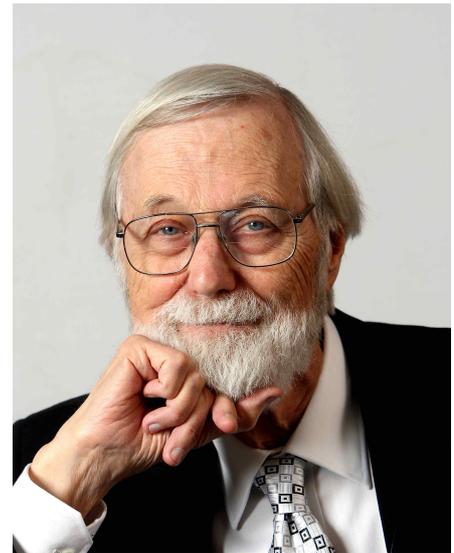
대표적인 업적은 1956년 7차원 구면이 특이한 미분구조를 가질 수 있음을 보인 것인데, 그 후 7차원 구면은 모두 15가지(방향성까지 고려하면 28가지) 미분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Michel Kervaire (1927~2007)와 공동으로 증명하였다. 이외에 복소 초곡면의 고립된 특이점에 대한 연구로도 유명하며, 특히 위상적 성질을 연구하면서 Milnor fibration, Milnor number 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붙임 1. 아벨 강연자(존 밀노어 교수) 프로필

2. 아벨 강연 일정

□ 프로필

존 밀노어 교수는 1931년 뉴저지에서 태어났다. 1951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고,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박사학위를 채 받기 전인 1953년에 교수로 임용되었다. 1954년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959년까지 알프레드 슬론 펠로우로 활동하였고, 1960년 교수가 되었다. 또한, 1962년 Henry Putnam 석좌교수로 임용되었다. 그는 1967년까지 프린스턴대학교에서 교수로 지냈으며, UCLA와 MIT를 거쳐 1970년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의 교수로 임용되었다. 현재 스톤브룩대학교의 석학교수 및 수학연구소 공동연구소장이다.



*사진출처: Abel Prize

- 강연 일시 및 장소
- 2014년 8월 15일 저녁 6시
- COEX Hall D